

광주MBC 시청자위원회

2020년 12월

- * 서면 제출일 : 2020. 12. 17.(목)
- * 총원 15명 중 8명 참여
- * 참여 위원 : 강부원 · 김요수 · 김태진 · 김형순 · 박미자 · 임철원 · 조숙경 · 최영태
- * 2020년 12월 시청자위원회 월례회의는 시청자위원회의 의결로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대면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 의견 제출로 대신 함

보도

□ 최영태 위원장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통과되었다. 광주 MBC도 이 법안 통과를 비중 있게 다루었다. 그 전 법사위에서 수정 통과된 내용도 보도했다. 그런데 이 법의 내용은 엄밀히 말하면 역사왜곡처벌법이라기보다는 5.18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처벌법이라고 해야 옳다. 왜냐하면 5.18에 대한 논의, 비판 등 학술적 토론이나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까지 처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뉴스에서도 5.18 처벌법의 제정 배경, 제정과정에서 여야 간에 어떤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논의과정에서 법안 내용에 어떤 수정이 가해졌는지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왜냐하면 5.18 처벌법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하는 견해가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최진석 교수가 5.18 처벌법 통과 후 <5.18을 왜곡한다>는 시를 통해 5.18에 대해 매우 자극적인 용어를 동원하여 5.18을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최 교수는 자신은 5.18을 비판한 게 아니라 5.18을 법의 테두리 안에 가두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 비판했다고 변호하고 있고, 이런 변명이 보수층은 물론이요 일부 중도층에까지 유포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5.18 처벌법의 제정 배경과 법안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이 지역 정치권도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홍보하는데 바깥 뿐 처벌법을 비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능동적 대처를 하지 않고 있다. MBC가 법안 통과에 대한 단순 보도에 그치지 말고 법안 내용과 제정 동기, 법안에 대한 보수층의 오해 등을 좀 더 자세히 해석해주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광주시와 공군 1전투비행단이 광주 군공항의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

다. 협약서의 내용은 비행 횟수 축소, 전투기 이착륙방식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노후 비행기 교체 등이다. 광주시는 이 협약서가 공군과 지방자치단체 간 맺어진 최초의 협약서라고 소개했고 12월 8일 뉴스데스크에서도 그렇게 보도했다.

공군과 광주시 사이에 협약서가 체결되고 3일 후에 공군 1전투비행단장이 교체되었다. 즉 12월 11일 협약 체결 당시 비행단장이었던 권오석 준장이 이임하고 새로 류진산 준장이 단장으로 취임했다. 광주MBC는 기회가 되면 신임 류진산 준장과 인터뷰를 하여 광주시와 1전투비행단이 체결한 협약서 내용을 변함없이 이행할 것인지 점검을 하는 보도를 한 번 했으면 좋을 것 같다.

미래 원정대의 위대한 여정

□ 강부원 위원

-<미래 원정대의 위대한 여정> 1부, 팬데믹과 인공지능에 관하여

오프라인인 아톰의 세계와 온라인인 비트의 세계가 일치하는 세계를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고, 산업혁명이라고까지 불리는 이유에 대한 설명, 즉, 비트의 세계에는 토지, 자본, 노동이라는 고전적 경제학이 필요 없는 세계가 아톰의 세계가 결합되기에 이전과는 다른 혁명의 경제가 된다는 것이다. 엘론 머스트의 뉴럴링크처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산업방식이 곧 다가온다는 건 우리의 삶도 변화에 따를 필요가 있다는 것처럼 느껴져서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격변의 시대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돌이켜 보면 불과 20여 년 전 시작된 휴대전화의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해결하고 있다는 것만 보아도 격변의 시대가 더 많이 빨라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듯하다.

교수님은 인공지능이 알파고 제로와 같이, 인간을 흉내 내는 게 아닌 인간을 넘어서는 창조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충격적이기까지 했고, 인공지능이 당연히 배워야 하는 과목과 같이 일반적인 게 될 것이라는 설명에 수긍이 갔다.

4차 산업혁명으로 양극화 되고, 대량화 되면서 실업문제 등이 불거지므로 이를 대비하자는 주장은 굉장히 현실적인 측면이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5년 정도 4차 산업혁명이 빨라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우리가 대비해야 할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아야 할 듯 보일 정도였다. 법률가인 저에게도 데이터의 처리는 개인정보의 측면 등과 관련하여 많은 산적한 문제가 될 수 있을 듯하여 굉장히 흥미로웠다.

-<미래 원정대의 위대한 여정> 2부 팬데믹을 보는 인문적 시각에 관하여

급격한 변화의 3가지, 전쟁, 팬데믹, 혁명 중 팬데믹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를 인문학적 원인으로 분석하는 내용은 매우 흥미로웠다. 다만, 페스트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방법 중 신학적 방식의 무모함보다는 과학적, 인문학적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르네상스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는 발제자의 주장은 물론 인과관계가 있는 말이지만, 페스트 때문에 르네상스가 발생했다는 단정적 표현은 논리의 비약이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었다. 르네상스는 팬데믹 이외의 교황권 약화, 도시의 발달 등 여러 원인이 집약되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개인주의가 강해지므로, 철학을 기초로, 한 단계 나은 삶을 살기 위

해 질문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 있었다.

□ 박미자 위원

-<미래 원정대의 위대한 여정>은 매회 빠짐없이 시청하고 있는 프로 중 하나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삶이 붕괴되어 가고 내일을 내다볼 수 없는 혼란 속에 한 가닥 빛 같은 프로그램이다.

녹화방송이지만 실시간 참여자의 모습과 질문도 이어지고 현장 진행자의 인터뷰를 통해 좀 더 심도 있게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물론 강사의 개인적인 학식과 논리와 주장이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들의 강의라 빠져들 수밖에 없었고 주변을 둘러보고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가끔 피티 자료와 강의 내용이 조금 달라 실수인가 싶은 장면도 있었지만, 자료화면 없이 계속 강사만 클로즈업 잡는 것이 시청자로 하여금 지루하게 비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용에 대한 부분에 편파적이거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은 사전에 공유되지 않아서이겠지만, 강사의 개인적인 판단이라 생각하고 듣게 되었다.

때론 새로운 사실에 대한 자료화면과 알기 쉬운 도표, 그래프로 시청자의 이해를 도운 것은 좋은 기획이었다고 생각한다. 팬데믹의 시대에 새로운 방향을 잡고 제대로 직시할 수 있는 눈을 키웠으며 발전적 메시지를 던져주어 좋은 시간이었다.

□ 임철원 위원

-창사 56주년 특별기획으로 제작된 <미래 원정대의 위대한 여정>은 5부작으로 11월 29일부터 매주 일요일 아침 방영되고 있다. 현재까지 3부작이 방영되었고 2부작이 남아있는데, 제1부는 팬데믹과 인공지능사회, 제2부는 기후의 역습, 미래를 위한 행동, 제3부는 팬데믹을 보는 인문적 시각, 제4부는 팬데믹이 가져온 일상의 변화와 미래의 교육, 제5부는 팬데믹 시대의 국가전략과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으로 나뉘어 해당 분야의 석학 및 명사들이 흥미진진하게 주제를 풀어가고 있다.

방영이 끝난 3부까지의 내용을 간추려보면 역사적으로 인류의 멸망을 초래한 것은 전쟁, 전염병(팬데믹), 기후변화 등이 주요 원인이고 이를 기점으로 이전의 세상과 이후의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뉴노멀)으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도 콘택트 시대에서 인공기반 중심의 언택트 시대로 바뀌고, 경제는 경제성과 효율성 중심의 양적 성장에서 회복 탄력성이 큰 지속 가능한 포용사회로 바뀌는 전환점이 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팬데믹을 어떻게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할지 명확한 답을 아직은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5부작 프로그램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에게 명쾌한 통찰력을 제시하고 있다. 1~3부를 보면서 팬데믹의 원인과 미래의 세상에 대해 막연하지만 트렌드를 읽을 수 있었는데 4, 5부를 시청하고 나면 미래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성과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어렵듯이 감을 찾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광주MBC가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힘든 시청자들에게 미래의 세상을 보여주고 대응책을 제시하며 불안감을 크게 해소해주었다고 생각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국의 방송사업자 대상 2019년도 방송평가에서 광주MBC가 TV, DMB-TV 부문 영예의 1위를 차지한 게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확실히 보여준 거 같다. 매우 흡족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으며 수상을 축하드린다.

□ 조속경 위원

-창사 56주년 기념 특집 방송 <미래 원정대의 위대한 여정> 시리즈는 코로나 시대의 대처법을 찾는 5주 연속 특강으로 기획 추진되었다. 대중 강연이 대세인 요즘 트렌드에 발맞춘 기획이라 생각한다. 나름 인지도 있는 인물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려던 프로그램이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올해 광주MBC가 표방했던 가치인 “공정”을 이야기해줄 수 있는 강연이 참가되었으면 하는 점이다. “공정”은 작금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하고 핫한 가치 중 하나이며 미래에도 여전히 유효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 최영대 위원장

-광주MBC가 창사 기념으로 <미래 원정대의 위대한 여정> 5부작을 제작하여 매주 일요일에 방영하고 있다. 구체적인 주제는 “코로나 이후 어떻게 살아야 할까?”이다. 출연자로 정재승 KAIST 교수,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 김준하 광주과기원 교수, 장대익 서울대 교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출연하기로 되었다. 이 중 2부는 최진석 교수가 “팬데믹을 보는 인문적 시각”으로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최진석 교수의 강의를 직접 못 들어서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로 들어보려 했으나 찾기가 어려웠다.

최진석 교수는 12월 11일 자신의 SNS에 <5.18을 왜곡한다>는 시를 통해 ‘5.18 역사왜곡 처벌법’을 심하게 비판했다. “5.18을 저주하고 5.18을 모욕한다” 등 그 동원 용어가 너무 자극적이었다. 최 교수 본인은 그의 시가 5.18을 비판한 게 아니라 5.18을 법의 테두리에 가두어 두는 행위, 그리고 5.18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단으로 등장한 것을 비판했다고 변명했지만 누가 보더라도 최 교수의 시는 5.18과 5.18 희생자, 그리고 광주시민을 모욕한 것이었다.

광주MBC는 5.18의 진실규명에 그 어느 방송보다 앞장섰다. 이런 점에서 최진석 교수가 광주MBC 특집프로그램에서 특강을 한 지 5일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결과적으로 MBC를 씩스럽게 만든 행위가 되었다. 향후 연사 교섭에서 특히 인문 사회과학 분야 전공자의 연사 교섭에서는 그의 역사의식 등에 대해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

오매 전라도

□ 박미자 위원

-12월 14일 방영된 부분에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시작하였는데 짧은 뉴스로 궁금하거나 몰랐던 내용들이 시청관계자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거리두기 격상에 대한 깊이 있는 설명의 시간이 있어 다행이었다.

지역의 이야기를 담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UCC공모전 1등의 장성 딸기생산자를 찾아 현장 인터뷰와 잠시 다른 곳의 시청분이 끝나고 다시 연결하여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은 생중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방송의 묘미였다. 지금처럼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시청자들에게 밝고 즐겁고 감동 있는 이야기거리로 볼거리 풍성한 <오매 전라도>가 되기를 바란다.

건축의 시간

□ 김요수 위원

-광주MBC의 '또 하나의 걸작'이 나왔다는 느낌이 들었다. 우선 저는 4부를 보았다. 오래된 목욕탕 '청주 학천탕'에서 이야기는 시작되었다. 청주 로맨티스트의 부탁을 받고, 한국 건축계의 몬드리안인 김수근이 오래전 설계한 건물이다. 목욕탕을 이용했던 세대의 추억을 없애지 않고, 낡음 위에 감각을 얹어서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만들었다.

담양의 해동주조장을 문화예술촌으로 재탄생시킨 일은 과거와 현재를 융합한 걸작이었습니다. '막걸리를 빚다가 문화를 빚는다'는 말이 화면에서 느껴졌다. 건물의 정체성(아이덴티티)과 상징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물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를 잘 보여주었다.

석유 탱크로 쓰던 것을 '문화 비축 탱크'로 만든 것도 '산업 재생'의 성공 사례로 보여주었다. 조선 시대의 건축물을 '얼과 슬기'의 표본으로 공부한다면, 근대 건축물에서는 '삶의 현장'을 느끼게 한다. 오래된 건축물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훑아보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

완주 소양에 있었던 공장, 폐쇄된 뒤 사람들이 꺼리던 곳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 사람들이 찾아가고 싶은 곳으로 만든 일도, 건축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기회를 주었다. 오래된 건축물의 경우, '무엇을 없앨 것인가, 무엇을 덧붙일 것인가'란 주제를 생각한다는 점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하다.

없어진 카세트 공장을 팔복예술광장으로 고쳐 놔다. 같은 건물도 어느 각도, 어느 시간, 어느 현장에서, 누구를 배경으로 찍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철거는 역사를 부수는 일이다. 하지만 재생은 역사성과 장소성을 활용하여 우리에게 옛날의 이야기를 주고, 지금의 이야기를 담고, 우리의 미래를 꾸미기도 한다. 도시 재생하듯 우리 삶도 재생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특히 200명이 넘는 여직원들이 근무할 때 3칸의 화장실을 설명하고, 그 화장실을 현재에 보여줌으로써, 인권과 밥벌이와 시대의 변화를 느끼게 했다.

서울의 익선동 골목길은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오래된 골목길로 이끌기에 충분했다. 천덕영 교수의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할'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건축물의 가치를 찾아가는 일'에 대한 말은 울림이 있었다. 한옥에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건축을 바라는 것인가, 돌아보게 되었다.

옛날 비아면사무소로 썼던 광주 비아동의 한옥을 행정복지센터로 썼다가 이제 이전해야 하는 상황, 시멘트 건축물과는 달리 한옥은 이전하여 다시 세울 수 있다는 이야기, '생각을 비틀면 단점이 장점이 된다'는 교훈을 주었다. 한옥 교실을 지은 정수초등학교의 달라진 모습은 건축이 교육까지 바꿀 수 있다는 사례를 보였다. 우리가 날마다 보고, 날마다 생활하는 건물이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와 통했다. 지금의 건축이든, 과거의 건축이든, 대안이나 유행이나, 이렇게 단순하게 묻기에는 건축물의 의미가 깊다.

느낌을 주는 방송, 깨달음을 주는 방송은 늘 아름답다. 물 흐르듯 생각의 고리를 연결해 준 작가의 솜씨, 단순하게 재생의 모습만 보이지 않고 눈으로 느끼게 한 촬영의 솜씨가, 그리고 전문가들의 잔잔한 코칭의 말들이, 머리에 오래 머물게 한 프로그램이었다. 곧 1부부터 유튜브에서 시리즈로 찾아보려고 2021년 다이어리에 적바림(메모)해 두었다.

□ 최영태 위원장

-광주MBC가 최근 시사교양에서 주목할만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이 중 UHD 특집 다큐멘터리 8부작 <건축의 시간>을 매주 밤 10시 40분에 방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보

면서 문득 광주시가 10월 30일 선포한 ‘광주 도시건축선언’이 생각났다. ‘광주 도시건축선언’은 함인선 건축가를 광주시 총괄건축가로 위촉한 후 오랫동안 준비하여 행동강령으로 채택한 것이고 그 후 다시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나왔다. 광주MBC가 소개한 <건축의 시간> 프로그램들은 구체적인 건축공간을 소개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광주시가 발표한 ‘광주 도시건축선언’과 연결 지어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타

□ 강부원 위원

-한양수자인 파인힐스 아마추어 골프대회에 관하여

개인적으로 골프를 즐겨 하는 편이기 때문에 위 프로를 굉장히 즐겁게 보았다. 공중파뿐만 아니라, 지역방송에서는 거의 골프 프로를 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방송의 다양성 측면에서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한다. 다만 아마추어 대회이므로 다양한 아마추어의 모습이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선두권 중심의 플레이에 집중되는 듯 보였다. 선두권 선수들 모습 이외의 다른 선수들의 다양한 샷들도 보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 김태진 위원

-UHD 특집 다큐멘터리 <건축의 시간>, <친애하는 나의 도시>, <미래원정대의 위대한 여정>, <내 인생의 오일팔 스물네 번의 고백>까지 특집방송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시기에 맞는 주제들, 지역에서 고민해야 될 내용에 대해 접근하기 쉽게 특집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방송이 되어서 너무 좋았다.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 지역 내에서 더욱 이슈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시사 프로그램의 토론 주제나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으로까지 이어지면 좋겠다. 코로나나 정치 문제 등 전국적인 이슈 문제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이야기되어야 할 부분들이 충분히 이야기되지 못하고 있는 요즘, 광주MBC가 좋은 프로그램과 더불어 그런 공론의 장까지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좋겠다.

무언가 하나를 선택하기 힘들 만큼 <건축의 시간>, <친애하는 나의 도시>, <미래원정대의 위대한 여정> 모두 내용이 알차고 고민해 봐야 할 내용이 많이 담겨있었다.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 김형순 위원

-올 한해를 돌이켜보면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것 같다. 국가적으로 모두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다. 이런 와중에 광주MBC는 시청률 1위, 각종 수상, 여수 리조트 사업을 포함한 신규사업의 진출, 나주 난장곡간, 담양레코드박물관 등 지역사회와 다양한 상생 사업을 이루어냄으로써 지역의 공영방송으로써 확실히 자리 매김을 하였다고 생각한다.

물론 유튜브 실버 메달 수상 등 실질적인 경영개선에도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송일준 사장님을 필드로 모든 광주MBC 임직원분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한 해 동안 광주MBC 시청자위원으로 활동한 것에 보람을 느끼며 자랑스럽다.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다. 내년에도 더욱 큰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

□ 박미자 위원

-처음부터 듣지 못하는 프로지만 출근시간 낮 익은 목소리의 <황동현의 시선집중>. 그중 이돈삼 시민기자 와 함께 하는 ‘아름다운 남도’ 코너는 매우 유익하게 듣고 있다. 블로그나 지도에서 찾기보다 직접 다녀와서 들려주는 숨겨진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여행에 대한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가족끼리나 혼자서 조용히 떠날 수 있는 목적지를 소개해 주셔서 너무 만족하고 있다. 진행자의 적절한 질문 속에 내가 궁금했던 것들을 들으며 출근하는 시간은 빨리 그곳으로 달려가 보고 싶은 충동까지 들게 한다. 유명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보다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곳, 나만 알고 찾아가는 곳으로 장소나 주소를 저장해 두기도 한다. 변화되는 요즘 시대에 맞춰 청취자들의 요구와 입장을 생각해 꼭 필요한 코너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 조속경 위원

-올해 광주MBC는 유난히 상복이 많은 해로 기억될 것 같다. 제가 기억하기로도 참 많은 상을 수상했다. 사장님을 비롯하여 전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일년 간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낸다. 상을 수상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프로그램을 꾸준히 기획하고 또 만들어 오신 분들에게는 더 큰 박수를 보낸다. 내년에도 뜻깊고 알찬 프로그램에 힘써주기를 기대하겠다.

-19일에 양림동 펭귄스튜디오에서 진행된 5.18 40주년 특집 라디오 5시간 생방송 <광주를 넘어, 오월을 넘어>는 아주 좋은 기획이었다. 5.18 40주년을 마감하는 12월이 가기 전에 마련되었다는 점, 그리고 5.18 특별법 제정 등과 관련된 최근의 현황들을 정리해주었다는 점 그리고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5.18의 미래를 고민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탁월한 기획이라 생각한다.